<반짝반짝 한국어> 4 퇴화하는 표현들

Hello and Welcome to Twinkling Korean podcast season5 episode 4. This podcast is designed to help people learning Korean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M: 안녕하세요. 반짝반짝 한국어의 Stefano 입니다.

F: 안녕하세요. 진이입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Stefano 씨도 잘 지냈죠?

M: 네. 잘 지냈어요. 진이 씨, 시간이 정말 잘 가네요. 벌써 12 월이에요.

F: 네, 벌써 올해도 일년이 다 갔네요. Stefano 씨, 올 한 해 잘 보낸 것 같아요?

M: 그럼요. 이렇게 매주 반짝반짝 한국어 시간에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잖아요.

F: 그럼 저도 올 한 해를 아주 잘 보낸 것 같네요. 저 역시 일주일에 한 번씩 반짝반짝 한국어를 통해 여러분과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요.

M: 자, 그럼 오늘 방송도 잘해 볼까요? 진이 씨, 오늘은 어떤 신문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F: 오늘은 한국어와 관련된 기사인데요. 정확히 말하면 신문 칼럼이에요.

M: 아, 칼럼이요? 그럼 오늘은 뉴스라기보다는 약간 어떤 주제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자는 느낌이 강할 것 같네요.

F: 네, 맞아요. 오늘은 한국어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봐요. Stefano 씨, 혹시 '수량단위'라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있어요?

M: '수량단위'요? 그런 거 아니에요? 사과 한 개, 친구 한 명, 강아지 한 마리처럼 '개, 명, 마리' 같은 것을 수량단위라고 하잖아요.

F: 네, 맞아요. 오, Stefano 씨, 잘 알고 있네요. 그럼 지금 말한 '개, 명, 마리' 말고 또 어떤 수량단위를 알고 있어요?

M: 음..... 책을 셀 때 쓰는 '권', 콜라나 주스 같은 병을 셀 때는 똑 같은 '병', 음식을 셀 때 쓰는 '그릇', 또 뭐가 있더라. 음... 처음에 한국어 공부할 때 발음 때문에 살짝 헷갈렸던 '잔'하고 '장'이요. '잔'은 '커피 한 잔, 두 잔'처럼 쓰는 거고, '장'은 '종이 한 장, 두 장'처럼 쓰는 거잖아요. 한국어 수량단위에 대해 제가 좀 아는 거 같죠?

F: 그러네요. 잘 알고 있네요. '개, 명, 마리, 권, 병, 그릇, 그리고 Stefano 씨가 헷갈렸던 잔, 장'처럼 한국어에는 굉장히 많은 수량단위가 있어요.

M: 아, 또 있다. 한국 사람들이 처음 만나면 자주 몇 살이냐고 물어보는데 '몇 살'할 때 '살'도 수량단위죠?

F: 네, 맞아요.

M: 그럼 오늘은 이 수량단위에 관한 기사인가요?

F: 네, 맞아요. Stefano 씨, 역시 눈치가 빠르다니까요. 그럼 오늘도 기사를 듣기 전에 제가 말하는 표현들을 집중해서 들어 보세요.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다, 수량단위가 점점 단순해지다, 수량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점점 약해지다,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언어의 완결성과 자기다움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편리함과 간결함을 기준으로 언어의 모습을 탈바꿈시키다, 일회용 소모품이 되다'예요. 이 정도면 기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N: 한국어에서 양이 많고 적음은 숫자나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수관형사 그리고 '개, 명, 마리, 병, 잔, 권' 등과 같은 수량단위로 나타냅니다. 수량단위는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전문적인 단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단위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아마 개수를 일컫는 '개'일 것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이 수량단위가 점점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책을 '한 개, 두 개' 하며 세는 것도 흔해졌고, 식당에서 "맥주 다섯 개요?" 하고 되묻는데 아무도 이상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쟤네 집에는 차가 세 개나 있대."라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만요, 담배 한 개 사올게요."에서의 '개'와 "하루에 담배를 스무 개나 피워요?"에서의 '개'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량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함께 수량단위와 함께 쓰이는 수관형사 '한, 두, 서(석), 너(넉) ...'에서도 '서(석)'와 '너(넉)'를 들어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장년층에서조차 '종이 석 장'과 '볼펜 넉 자루'를 각각 '세 장'과 '네 자루'라고 말한다. 볼펜은 아예 '네 개'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해도 그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대세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오래된 언어는 긴 세월 유지해온 정교한 틀이 있습니다. 불편해 보여도 언어의 완결성과 자기다움을 보여주던 장치였습니다. 삶의 속도와 효율성 추구는 이러한 불필요한 듯하면서도 자기답게 만들어주던 장치와 장식을 용서 없이 팽개치고 있습니다. 의미와 용법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편리함과 간결함을 기준으로 언어의 모습을 거침없이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언어도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F: 여러분, 잘 들으셨죠? 기사 내용을 얼마나 이해했나요? Stefano 씨, 기사 내용이 어때요?

M: 기사를 듣기 전에 저에게 왜 수량단위에 대해 질문했는지 이해가 되네요. 그러고 보니 저도 이 기사처럼 수량단위를 단순하게 사용하는 거 같네요.

F: 그렇죠? 그럼 이번에는 기사를 부분 부분 들으면서 기사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M: 네, 좋아요.

N: 한국어에서 양이 많고 적음은 숫자나 '하나, 둘, 셋, 넷'과 같은 수관형사 그리고 '개, 명, 마리, 병, 잔, 권' 등과 같은 수량단위로 나타냅니다. 수량단위는 보통 사람들이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를 전문적인 단위들도 있지만 반대로 일상생활에서 긴요하게 쓰이는 단위들도 꽤 많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아마 개수를 일컫는 '개'일 것입니다.

F: 그럼 여기까지 들어 볼게요. Stefano 씨, 이 부분에서는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M: 한국어의 수량단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네요. 한국어에서 '하나, 둘, 셋, 넷' 등과 함께 '개, 명, 마리, 병, 잔, 권'과 같은 수량단위를 쓴다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개'라는 거죠.

F: 네, 맞습니다. 아까 듣기 전에 말한 표현 중에서 '양이 많고 적음을 나타내다'가 이 부분의 중요 내용이 될 것 같네요.

M: 맞아요. And this means 'it shows whether the amount is big or small'. 수량단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서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F: 그럼 기사를 계속 들어 볼까요?

M: 네, 좋아요.

N: 언제부터인지 이 수량단위가 점점 단순해지고 있습니다. 책을 '한 개, 두 개' 하며 세는 것도 흔해졌고, 식당에서 "맥주 다섯 개요?" 하고 되묻는데 아무도 이상해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쟤네 집에는 차가 세 개나 있대."라는 말도 흔히 듣습니다. 그러다 보니 "잠시만요, 담배 한 개 사올게요."에서의 '개'와 "하루에 담배를 스무 개나 피워요?"에서의 '개'가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수량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것은 아닙니다.

F: Stefano 씨, 이번 부분은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M: 이번에는 앞에서 소개했던 수 많은 한국어 수량단위들이 한국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량단위 '개'로 단순해지고 그러다 보니 정보 교환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하고 있는데요. 맥주를 셀 때 '병'이 아니라 '개'로 단순해지고 있다는 부분은 저도 이해했는데요. 정보 교환이 약해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죠?

F: 우리가 들은 부분에서 '담배 한 개 사올게요.'에서의 '한 개'는 원래 '한 갑'이라고 해야 하고, '담배를 스무 개나 피워요?'에서의 '스무 개'는 원래 '스무 개비'라고 해야 하거든요.

M: 그러니까 담배 한 갑에는 담배 스무 개비가 들어 있다고 해야 되는군요. 담배 한 개에 담배 스무 개가 들어 있다고 하면 둘 다 '개'를 사용하니까 정보 교환이 약해진다는 의미군요. 이상하긴 하네요.

F: 그렇죠. Stefano 씨, 그럼 이 부분에서는 어떤 표현이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M: 역시 'expressions related to amount and quantity of items are somewhat getting simpler in Korean, and people are experiencing some communication issues in this respect'가 될 것 같은데요.

F: 네, 맞아요. 한국어 수량단위의 사용이 단순해져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 때문에 정보 교환이 약해지고 있다고 했으니까 '수량단위가 점점 단순해지다, 수량과 관련된 정보 교환이 점점 약해지다'가 이 부분에서는 중요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M: 저 같은 외국인들은 특히 '개'를 많이 사용하는 거 같아요. 다양한 수량단위를 다 알 수도 없고 쓰다 보면 잘못 사용할 때도 많아서 '개'를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도 그렇다니 흥미롭네요. 그러고 보니 제 주위 한국 사람들도 수량단위를 다양하게 쓰는 것 같지는 않네요.

F: 그럼 계속 들어 볼까요?

N: 이와 함께 수량단위와 함께 쓰이는 수관형사 '한, 두, 서(석), 너(넉) ...'에서도 '서(석)'와 '너(넉)'를 들어보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미 장년층에서조차 '종이 석 장'과 '볼펜 넉 자루'를 각각 '세 장'과 '네 자루'라고 말한다. 볼펜은 아예 '네 개'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많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렇게 해도 그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새 대세가 되어 버린 느낌입니다.

F: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별로 어렵지 않죠? Stefano 씨, 이 부분에서는 어떤 내용을 말하고 있죠?

M: 이 부분에서는 수량단위뿐만 아니라 '셋, 넷'과 같은 의미인 '서 또는 석, 너 또는 넉'과 같은 표현도 점점 듣기 어려워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볼펜 네 자루' 대신 '네 개'를 써도 불편하거나 어색해 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맞죠?

F: 네,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불편함이나 어색함을 호소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가 중요 표현이 될 것 같아요.

M. That's right. 'There isn't almost anybody complaining about not understanding each other'. 그렇겠네요. 저는 아예 볼펜을 셀 때 '자루'를 사용한다는 거 자체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문방구에 가도 한국 사람인 주인 아저씨도 '볼펜 몇 자루'가 아니라 '볼펜 몇 개 드릴까요?'라고 말하니까요.

F: 그렇긴 하네요. 그럼 남은 부분을 끝까지 들어 볼게요.

N: 오래된 언어는 긴 세월 유지해온 정교한 틀이 있습니다. 불편해 보여도 언어의 완결성과 자기다움을 보여주던 장치였습니다. 삶의 속도와 효율성 추구는 이러한 불필요한 듯하면서도 자기답게 만들어주던 장치와 장식을 용서 없이 팽개치고 있습니다. 의미와 용법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한, 편리함과 간결함을 기준으로 언어의 모습을 거침없이 탈바꿈시키고 있습니다. 언어도 일회용 소모품이 되어 가는 느낌입니다.

F: Stefano 씨,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 같아요?

M: 이 부분은 이 칼럼을 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들어 있는 거 같네요. 사용이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언어도 종이컵이나 나무 젓가락처럼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이 되어 가고 있다는 말을 하고 있네요.

F: 네, 맞아요. 그럼 이 부분에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 될까요?

M: 'It's a mechanism that shows a language integrity and self-identity', 'it changes a language accordingly to ease of use and conciseness', 'It becomes like a single-use product'가 되겠네요.

F: 네, 맞아요. '언어의 완결성과 자기다움을 보여주는 장치이다, 편리함과 간결함을 기준으로 언어의 모습을 탈바꿈시키다, 일회용 소모품이 되다'가 가장 중요한 표현이고, 이 칼럼을 쓴 사람이 하고 싶어하는 말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언어의 완결성과 자기다움을 보여주는 장치란 한 나라의 언어에는 그 나라만의 역사, 문화 등이 녹아 언어라는 장치에 담겨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런 언어를 불편하고 복잡하다는 이유로 단순하게 모양을 바꾸고 게다가 아까 Stefano 씨가 말한 것처럼 일회용 종이컵이나 나무 젓가락처럼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 칼럼을 쓴 사람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M: 진이 씨, 오늘도 정말 의미 있는 기사를 소개해 줬네요. 저는 그냥 제가 외국인이니까 이렇게 써도 이해해 주겠지 하는 마음이 컸었거든요. 이제부터는 올바르게 한국말을 사용해야겠어요.

F: 저도 그래야겠어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언어란 지금까지 계속 변해 왔고 생겼다가 사라지고 또 다시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런 현상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그럼 오늘 기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M: 오늘 기사 내용은 한국어의 다양한 수량단위가 점점 단순해지고 있음을 안타까워하는 칼럼을 소개했습니다.

F: 한국어를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무척 궁금한데요. 기사와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우리 페이스북 페이지에 의견을 남겨 주세요. Stefano 씨, 우리 주소 알려 주세요.

M: 우리 주소는요. www.facebook.com/twinkling.korean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 드려요.

F: 그럼 다음 시간에도 좋은 기사로 여러분을 찾아 뵙겠습니다. 건강하게 한 주 보내시고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M: The piece of news from above is an adapted excerpt from the article '퇴화하는 표현들' that appeared on the Han'gyŏre Sinmun on June the 15th 2015. Twinkling Korean, the Korean Learning podcast is designed and recorded by Gilddong KFL.